

제1회 선학평화상 아노테 통 대통령, 모다두구 굽타 박사 공동수상

설립자 참부모님 직접 시상, 정의화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 참석



1.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참어머님
2. 선학평화상 공동수상자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에게 시상하시는 참어머님
3. 선학평화상 공동수상자 및 홍일식 위원장과 기념촬영해주는 참어머님
4.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에 참가한 국내외 귀빈들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이 천력 7월 15일(양 8.28)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선학평화상의 설립자인 참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문선진 선학평화상재단 이사장, 정의화 국회의장,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철승 이사장 등의 주요인사, 무하마드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등 ‘World Summit 2015’에 참석한 해외 전·현직 국가수반을 비롯하여 정관계, 학계, 재계, 언론계, 종교계를 대표하는 1,0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참부모님께 존경과 감사, 평화 실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선학평화상’은 미래세대의 평화와 복지에 현격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인류의 미래 평화는 바다’를 제1회 시상 테마로 정한 선학평화상은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의 후보자 추천 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첫 수상자로는 아노테 통(남, 63세) 키리바시 대통령과 인도의 모

다두구 굽타(남, 76세) 박사가 공동선정됐다. 이날 참어머님께서서는 홍일식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수상자들에게 메달 및 상패를 수여해 주셨다.

아노테 통 대통령은 수상연설을 통해 ‘권위 있는 선학평화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하며 ‘세계평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문선명·한학자 총재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학평화상의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세계가 키리바시 국민들의 역경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전 세계가 저희 국민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공동수상자인 모다두구 굽타 박사는 ‘평생의 목표는 굶주림과 가난을 줄여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제1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큰 명예와 영광’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학평화

상 수상을 계기로 기아와 빈곤완화를 통해 평화사회에 기여하려는 제 평생의 목표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뒤, 평화로운 인류 한 가족의 비전과 이상을 추구해 오신 참부모님께 경의를 표하며 수상연설을 마쳤다.

선학평화상, 새로운 평화의 지평 열어갈 것

이날 시상식은 방송인 신영일과 정세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최선언, 경과보고, 홍일식 위원장의 환영사, 정의화 국회의장의 축사, 무하마드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축사, 수상자 소개영상, 메달 및 상패 수여, 수상자의 수상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홍일식 위원장은 환영사에 “현 세대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인종과 국경과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서 범 인류애를 기반으로 한 평화 문명을 모색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학평화상은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이라는 기치 아래, 인류가 20세기 까지 쌓아 올린 문명의 적폐와 한계를 넘어 인류공동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어가는 상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아름다운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 온 우리 시대의 영웅들을 위한 자리’라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 인종, 종교간의 갈등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어질 때에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 공동체의 연대와 소통에 기반한 세상을 지향하는 선학평화상의 비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공동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무하마드 유수프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축사에서 ‘인류가 바라는 것은 결국 평화로운 세상’임을 강조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서로 화합하며 조화를 이룰 때, 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바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한국 어린이전통예술단인 리틀엔젤스가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며 축하를 불러 시상식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아노테 통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지난 천력 7월 14일(양 8.27)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15 기후변화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토론에 참석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선학평화상위원회)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기념오찬’ 열려

총재 양위분의 평화유산 상속하고 통일된 하나의 세계 향해 나아가야



1.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시는 참여머님
 2. 축사를 하고 있는 문선진 선학평화상재단 이사장
 3. 사회를 하고 있는 토마스 윌시 UPF 세계회장
 4. 소감발표를 하고 있는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5. 소감발표를 하고 있는 댄 버튼 前 미국 하원의원
 6. 소감발표를 하고 있는 호세 드베네시아 필리핀 前 국회의장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기념오찬’이 천력 7월 15일(양 8.28) 12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기념오찬에서 참여머님, 문선진 선학평화상재단 이사장, 홍일식 선학평화상위원장, 공동수상자 아노테 통 대통령과 모다두구 굽타 박사 등은 역사적인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커팅했다. 오찬은 비케이 싱 인도 식감주 전 주지사의 건배제의로 시작됐다.

총재 양위분의 평화유산 상속과 우리의 사명

문선진 이사장은 기념오찬 축사에서 “선학평화상의 창설자이신 故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양위분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당신의 일생을 완전히 바치셨다. 문 총재 양위분 업적의 핵심적인 초점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다.”며 “이 비전은 인류가 참사랑의 심정문화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생활하는 하나된 세상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모이신 문선명 총재 양위분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참사랑의 길을 걸으며 평화의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셨다. 그 씨앗은 깊은 뿌리를 내렸고 멋지게 성장해 각 분야에서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선학평화상은 총재 양위분의 놀라운 평화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이사장은 ‘자연은 우리의 첫 어머니다. 우리의 성장과 생명유지

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그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의 원인은 사랑이다.’라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구가 창조된 목적은 인간이 삼라만상과 자연의 감동적인 아름다운 속에 번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위하는 삶을 실천하고 이 지구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세대에 인계해야 한다. 총재 양위분께서는 누구보다 이러한 일에 모범이 되셨다.”며 평화의 전통계승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선진 이사장은 “선학평화상 수상자이신 아노테 통 대통령과 모다두구 굽타 박사는 인류 한 가족과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을 위해 큰 공헌을 하셨다. 앞으로도 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한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하며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선학평화상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며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며 평화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했다.

제1회 선학평화상 성공의 기반 위에 더욱 발전하길

이어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댄 버튼 前 미국 하원의원, 호세 드베네시아 필리핀 前 국회의장 등이 이날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발표했다.

먼저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인 정태익 회장은 “작년부터 1년 동안 수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100여 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두 분이 수상하게 된 것은 갈등과 반목의 반대 개념인 협의의 평화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놓고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보다 확대된 평화의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라며 수상자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미래에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준 두 분의 수상은 뜻 깊다. 제1회 선학평화상은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댄 버튼 의원은 “인류는 평화세계의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국제적 공조 속에서 식량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선학평화상이 설립자이신 한학자 총재의 리더십 속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호세 드베네시아 필리핀 전 국회의장은 “선학평화상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문선명 총재의 유산이다. 올해로 성화 3주년을 맞게 된 문선명 총재께서는 참사랑으로 평화의 비전을 실천하며 국경, 종교, 문화, 인종, 언어의 벽을 넘어 인류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증언했다.

이어 “문선명 총재 양위분께서는 남북통일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펼쳐오셨다. 오늘 선학평화상 시상식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독일이 했으니 분명 한국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의 길을 이끌어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강연 |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강연’이 천력 7월 15일(양 8.28) 오후 5시 국내외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동수상자인 아노테 통 대통령과 모다두구 굽타 박사의 강연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아노테 통 대통령,
기후변화와 세계 평화**

오늘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한학자 총재님과 전 인류를 포용하고 세계평화를 빚어내고 후원하는 비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지구, 우리의 집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없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집과 지구는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 피해의 영향권에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국민만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될 것입니다.

해발 3미터도 안 되는 낮은 산호섬에 살고 있는 키리바시 국민들은 해수면상승뿐 아니라 사이클론 팜, 극도의 기후패턴들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섬과 집은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현 세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비롯해 국민으로서, 문화로서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키리바시는 지금 투발루, 마셜제도, 토켈라우, 몰디브 등 낮은 산호섬 국가들과 함께 기후재난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국제공동체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논의를 해왔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약속도 분명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맹습은 조용하게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를 안일하게 하며, ‘지금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그냥 다음세대에게 넘기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은 안보문제를 더욱 치명적으로 위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후 변화의 혹독함과 빈번함을 어느 정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지금보다 빈번해지면 전 세계에서 대참사가 발생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발전이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 이 재난을 ‘인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보는 사람 없이 평화와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와 세계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행동’



공동수상자 아노테 통 대통령

을 해야 하며,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전선 국가들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기존 문제들과 안보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홀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나라 사람이든 그 행동이 나머지 세계와 동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의 지구에 공존하고 있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지구를 보호하는 것과 후손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모다두구 굽타 박사,
‘소규모 농업과 식량안보 그리고 평화’**

주최 측이신 선학평화상재단과 그 창시자 한학자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식량안보와 세계평화, 그리고 이를 위한 소규모 농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가모니는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이 ‘굶주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빈곤과 기아는 개발도상국이 처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일 세계인구 9명중 1명이 굶고 있는데, 그들은 세계 인구의 13.5퍼센트인 약 8억 명으로,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농부들을 위한 기술 개발’로서 수산양식이야말로 토지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 노동기구(ILO)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세계 농업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이 토지 없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는 2억 4천만의 세계 어린이 중 60퍼센트가 수산업



공동수상자 모다두구 굽타 박사

과 수산양식을 포함한 농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풀뿌리 차원에서 일하는 NGO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토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5~10명씩 그룹으로 묶어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함은 물론 그들이 연못들을 공적, 사적으로 임대하도록 도와 양식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도 학교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고 양식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미활용 수자원을 활성화시키고 토지 없는 가구들의 생계수단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접근법이 성공하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색혁명을 이야기할 때 기아로부터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전적 강화 및 품종교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경우 특히 열대지방에서는 사육을 많이 하지 않아 유전연구를 착수할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진국 연구기관과 개발도상국 연구소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자라는 어종을 다양하게 개발해 개발도상국들 내의 물고기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색혁명이 식량과 영양안보에 기여하여 가난한 수백만 시골사람들의 생계를 개선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들의 적절한 전략, 개발계획, 적당한 자원분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빈곤, 기아, 영양결핍문제를 해결합시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개막

문선진 세계회장 기념사 “참사랑을 최고 목표로 삼은 하늘의 효자 되자”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청년학생세계총회가 천력 7월 15일부터 17일까지(양 8.28~30) 전 세계의 통일가 미래세대를 대표한 청년, CARP, 성화학생 리더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번 총회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모토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미래세대의 희망을 봉헌하는 결의와 화동의 축제로 기획됐다.

평화의 꿈 실현하며 세상에 희망 주어야

문선진 세계회장은 총회 기념사에서 먼저 “전 세계에서 오신 청년 학생들의 열정에 크게 감동했다.”며 전 세계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뒤, “오늘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이 있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섭리적 승리에 기뻐하셨다.”고 전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여러분의 역동적인 패기와 열정적인 젊음이 통일가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희망을 주고 있다. 여러분이 선정한 모토인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는 참부모님께 큰 기쁨을 주고 있다. 또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희망 봉헌을 하면서 참된 효자와 효녀가 되겠다고 맹세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문 세계회장은 또한 “천주성화 3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는 진실한 마음과 심정과 영혼으로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 유산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젊은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면 항구적인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각자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하여 평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은 마음과 인격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유일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이해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참사랑이 인생의 목표와 핵심이 되면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은 명예, 출세, 인내, 창의력, 화합, 품위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선진 세계회장은 “천주성화 3주년을 위해 모인 우리는 큰 열정과 희망이 있는 젊은이들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아래 한 형제자매다. 우리가 손잡고 같이 일한다면 분명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보물과도 같은 성스런 빛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Vision 2020 청년학생 어젠더 채택

총회를 개막하는 이날 개회식은 문상필 한국CARP 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경배, 꽃다발 봉정, 나오키미 우시로다 미국CARP 회장의 보고기도, 대륙별 청년학생 소개, 권인성 월드CARP 회장의 환영사, 문선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기념사, 이항주 한국CARP 학생회장과 후시타니 히로키 일본성화학생대표의 결의의 시간, 모토야마 일본CARP 회장 선창의 역만세 삼창, 폐회선언,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인성 월드CARP 회장은 환영사에서 “참아버님께서는 통일가 미래세대를 사랑하시어 ‘세상 앞에 귀하게 성장해 지도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하셨다.”면서 “이는 통일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아버님의 말씀에 제 안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고, 여러분과 마주하게 될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밝힌 뒤,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참부모님의 비전과 희망을 상속받기 위해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청년 학생들을 환영했다.

이날 개막하는 청년학생세계총회는 첫날 모임과 만남, 둘째 날 상속과 약속, 셋째 날 희망봉헌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전 세계에서 온 청년학생들은 참부모님 특별집회, 청년학생총회, 심정 문화축제, 성지순례, 선배가정과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는 다음과 같은 8개의 Vision 2020 청년학생 어젠다를 채택했다. △정체성(참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지키며 개인역량 개발), △전도(신종족메시아 활동에 동참하고 개인당 3명 전도), △교육(후배, 동생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헌신), △한 형제(모든 축복가정 자녀를 뜻 길 가운데 인도), △남북통일(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계적 청년학생 캠페인 추진), △참가정운동(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의 가치를 드높임), △세계평화(세계평화학생연합의 UN등록), △환경보호(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세계적 청년학생 캠페인 추진). (기사제공: 월드CARP)



1.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선진 세계회장
2. 박수로 문선진 세계회장을 환영하는 청년학생들
3. 대륙별 소개시간에 힘찬 열정을 보여주는 북미대륙 청년학생들
4. 환영사를 하고 있는 권인성 월드CARP 회장
5. 사회를 하고 있는 문상필 한국CARP 회장
6. 보고기도를 하고 있는 나오키미 미국CARP 회장
7. 역만세 선창을 하고 있는 모토야마 일본CARP 회장
8. Vision 2020 승리를 결의하고 있는 전 세계 청년학생들

천주성화 3주년 기념 'WORLD SUMMIT 2015' 개막

전 세계 전·현직 국가수반, 종교, 정치, 경제, NGO, 여성 지도자 250여 명 참석



1. '평화, 안보, 인류발전' 주제의 세미나 전경
2. WORLD SUMMIT 2015 참석자를 환영하는 모습
3. 개막만찬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각국 지도자들
4.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의 지도자들
5. 환영사를 하고 있는 안준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부회장
6. 사회를 하고 있는 토마스 월시 UPF 세계회장

'WORLD SUMMIT 2015'가 천력 7월 14일부터 18일까지(양 8.27~31) '평화, 안보, 인류발전'을 주제로 55개국에서 전·현직 국가수반, 정치, 종교, 경제, NGO, 여성 지도자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WORLD SUMMIT 2015'에는 아노테 통(Anote Tong) 키리바시 대통령 및 영부인, 무하마드 칼라(Muhammad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 부부, 시아오시 소발레니(Siaosi Sovaleni) 통가 부통령, 아디 코일라 나일라티카오(Adi Koila Nailatikau) 피지 영부인, 레오니드 크라프추크(Leonid Kravchuk)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데리코 프랑코(Luis Franco) 전 파라과이 대통령, 폰살마깅 오치르바트(Punsalmaa Ochirbat) 전 몽골 대통령, 라힘 후세이노프(Rahim Huseynov) 전 아제르바이잔 수상, 스타니스라브 슈스케비치(Stanislav Shushkevich) 전 벨라루스 최고소비에트 의장 등이 참석했다.

'WORLD SUMMIT 2015' 개막만찬은 천력 7월 14일(양 8.27) 오후 5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렸다. 주최 측을 대표해 문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토마스 월시 UPF 세계회장, 안준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부회장이 세계 각국에서 온 지도자들을 환영했다.

'WORLD SUMMIT 2015'에 참석한 국내외 지도자들은 천력 7월 15일(양 8.28)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과 축하오찬 그리고 수상자인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의 수상자 특별강연에 참석했으며, 천력 7월 17일(양 8.30)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일에는 기념식에 참석해 인류구원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생애를 살아오신 참아버님의 숭고한 뜻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전·현직 국가수반 및 각계 지도자들은 'WORLD SUMMIT 2015'에서 진행되는 총 8차례의 세미나에서 '평화, 안보, 인류발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듣고 평화의 관점, 중동평화, 여성의 인권, 가정의 가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에서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이 초종교 화해의식과 평화를 위한 발표도 가질 예정이다.

천주평화연합(UPF)은 작년 천주성화 2주년을 기념하여 2014 세계평화정상회의를 '평화, 안보, 인류발전'을 주제로 13개국의 전·현직 수반들과 40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힐튼 호텔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금년 'WORLD SUMMIT 2015'는 세 번째 행사다.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창설된 UPF는 UN경제이사회 특별자문기관의 지위를 가진 국제연대기구로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 UPF는 현재 전국 3만 2천여 명의 각계 직능별 지도자들이 활약하고 된다.☺

<기사제공: 대외협력본부>



세계평화여성연합 천주성화 3주년 맞아 한반도의 통일미래 준비하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심포지엄 개최, 제5 UN사무국 유치 운동 전개

세계평화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여성지도자 섭리특별교육', '201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심포지엄', '대학생 통일포럼'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러한 기념행사들은 참부모님의 평화비전과 사상을 각계지도자, 대학생, 일반시민들에게 전하여 한반도의 통일미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DMZ 평화공원조성과 제5 UN사무국 유치를 위한 여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로 기획, 진행됐다.

여성지도자 및 대학생 교육 통해 통일시대 준비

여성연합이 주최하고 세계평화교수협의회가 후원한 '여성 지도자 섭리특별교육'이 천력 5월 10일(양 6.25)부터 1박2일 동안 문연아 세계회장을 중심으로 여성연합 광역지도 지부장, 서울시 구지부장, 본부임직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실시됐다.

특별교육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승리를 위한 내적인 정성의 기대 위에 지부장들이 천일국과 조국광복 그리고 신중동아시아의 섭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가복귀와 참부모님의 UN섭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역량강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교육일정 동안 선문대학교 정시구 교수의 '한반도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의미', 한반도평화국제협력네트워크 박중현 회장의 '섭리사관으로 본 UN의 역사: 새 평화문화의 탄생지 제5 UN사무국', 선문대학교 오택용 교수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제5 UN사무국 유치에 관한 섭리적 의의'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뒤 열린 폐회식에서 문연아 세계회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섭리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의 여성 지도자로서 Vision 2020 승리와 신중동아시아의 사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1,6. '201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심포지엄' 행사 전경
2. 청원서 사인 후 가진 단체 기념촬영
3. 대학생 통일포럼 진행 장면
4. 섭리특별교육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여성연합 지도자들
5. 유치청원서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VIP들

한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대학생 통일포럼'이 천력 5월 18일(양 7.3)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청년들의 역할'을 주제로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연합 주최로 세계일보 유니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송희 학생(탈북자, 북한청년대표), 동국대학교 북한학 석사과정 재학 중인 김덕우 학생(남한청년대표) 등이 통일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통일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일상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지혜

를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201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심포지엄 개최

여성연합 주최 '201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심포지엄'이 천력 6월 7일(양 7.22) 남양주시 2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제5 UN사무국 한국 유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각계 지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연아 세계회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제5 UN사무국을 유치하려는 민간과 정부의 활동은 향후 UN이 추진하고자 하는 평화정책에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뒤, "21세기 평화세계를 향한 역사적 전진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신념을 밝혔다.

민경자 재향군인여성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UN한국협회 부회장인 박홍순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및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DMZ 평화공원 조성의 한반도 제5UN사무국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토론에는 구동수 교수(한신대학교), 한운수 전 회장(남양주시 민주평통), 신흥균 회장(민족통일협의회, 남양주시) 등이 참여했다.

천력 6월 15일(양 7.30)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는 이완영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윤용희 대구평화대사협의회장,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하 경북대교수를 비롯하여 정치, 교육, NGO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홍희락 국회의원, 배지숙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하였으며,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손기웅 박사가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좌장에는 윤용희 박사가, 토론에는 김영하 경북대 교수와 최미화 매일신문 심의실장이 참여했다.

여성연합은 UN의 미래를 놓고 상원으로서의 초종교 의회 설립을 주창하셨던 참부모님의 평화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제5 UN사무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전국적으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UN에 제출할 제5 UN사무국 한반도 유치 청원서에 사인하며 뜻을 모았다.☺

〈기사제공: 세계평화여성연합〉

천주성화 3주년, 한국대학원리연구회 참부모님 비전 따라 충효의 삶 다짐하다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 통일가의 미래 개척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출발 전 CARP센터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CARP희망여행단



압록강 철교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CARP 백두산 탐방단



조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수련생



천주성화 3주년 승리를 결의하고 있는 한국CARP 제2차 하계 방중수련 참가자들



봉화산 성지에 오른 수련생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한국대학원리연구회(이하 한국CARP)는 '2015년 하계 방중 특별수련(이하 특별수련)'을 비롯하여 CARP 희망여행단, 대학생 백두산 탐방, 제1회 우리노래 창작 경연대회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15 전국성화캠프'와 '청년학생세계총회'에 참석하는 등 참부모님의 전통상속과 더불어 통일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하늘의 축복과 은사 확인했던 CARP 특별수련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3년 양력 4월 초하루 천정궁 혼동회에서 문상필 한국CARP 회장에게 '하계 방중 신규 CARP회원 500명 수련'을 지시하셨다. 한국CARP 공직자와 원자들은 하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수련준비와 전도에 전력투구했다.

한국CARP 주관 특별수련이 미래 지도자 양성에 대한 참어머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 속에서 'CARP로의 초대, 영원히 사랑해요 참부모님'이라는 주제로 여수 청해연수원에서 실시됐다. 특별수련은 천력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양 6.18~7.24) 총 5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휴면원자 253명, 신규원자 25명, 기존원자 258명 등

537명이 참석했다. 한국CARP는 하늘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인도하심이 수련기간 동안 항상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련기간이 장마기간과 겹쳐 수련 스태프들은 기획한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항상 걱정했다. 비전 풍등 날리기, 성지 순례, 캠프파이어, 바비큐파티, 해양 썰린지 등은 비와 바람이 불면 결코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다. 5차례의 수련을 진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 기상청이 비와 강풍을 예보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하면 하늘은 비와 바람을 그치게 해주셨고 맑은 하늘을 허락해주시기도 하셨다. 날씨를 주관해주신 하늘의 역사하심은 수련의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였다. 수련에 참석한 CARP 원자들은 참부모님의 생애전통을 상속 받아 실제 천일국 시대 통일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천일국의 심정문화권을 창건하는 참된 주인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100여 명의 한국CARP 원자들은 천력 6월 23일부터 25일까지(양 8.7~9) 2박3일 동안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된 '2015 전국성화캠프'에 대학생 스태프로 참가해 미래의 CARP원자인 성화학생 동생들을 위해 봉사했다.

통일 염원하며 백두산 탐방 및 전국순례

'CARP 백두산 피스로드 탐방'이 천력 5월 22일(양 7.7)부터 4박5일의 일정으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비롯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대련, 단둥, 통화, 화룡, 장춘 등지에서 진행됐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조국이여 밝아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탐방에는 30여 명의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탐방단은 안중근 의사가 투옥되었던 뤼순 감옥을 방문해 조국의 독립을 향한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실천적 삶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압록강 철교 위에서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을 이룩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한국CARP는 백두산 탐방을 계기로 평화로운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2학기부터 통일세미나와 청년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CARP 희망여행단'은 천주성화 3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천력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양 8.12~16)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례했다. '우리의 기차는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품고 달린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는 CARP 원자, 전도대상자, 공직자 등 21명이 참가했다.

'CARP 희망여행단'은 4박5일의 여정 동안 참부모님께서 직접 목회를 하셨던 청파동 본부교회(현재 한국CARP 센터)를 출발하여 해양섬리의 성지인 여수 청해연수원까지 기차를 타고 성지순례, 통일염원 기도회,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지방교회 일손 돕기 등을 하며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 받고 통일의 큰 꿈과 기상을 가슴에 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CARP 희망여행단'은 천력 7월 2일(양 8.15), 팀별 순례를 마치고 순천에서 다시 만난 조례호수공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퍼포먼스와 행진을 했다. 순천 시민들도 청년학생들의 희망찬 외침에 동참해 만세를 부르거나 사진을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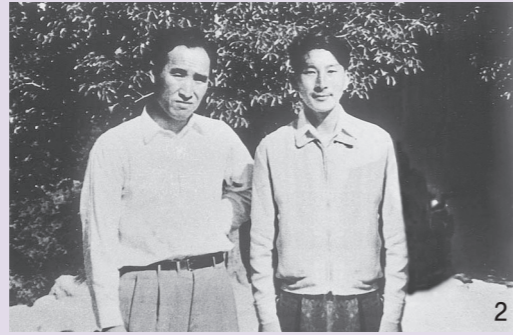
한국CARP는 천력 6월 23일(양 8.7)부터 21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015 글로벌 탐견 수련회'에 전체 공직자들을 참석시켜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천일국 실제화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천력 7월 15일부터 17일까지(양 8.28~30)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청년학생세계총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한국CARP>



참부모님의 섭리적 발자취;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신 일본



고난과 시련 넘어 일본교회 개척, 말씀 전파로 일본 전역으로 기반 확대



1. 와세다고등학교 동급생들과 함께
2. 참아버님과 최봉춘 선교사
3. 일요일예배를 드리는 초창기 일본
4. 제1기 특별수련회 개최식 후 가진 단체 기념촬영
5. 노방에서 강의하고 있는 수도 겐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을 맞이하여 본지는 어머니 나라 일본이 하나님 해방과 인류구원을 위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부모님을 섬기며 세계섭리를 위해 공헌한 역사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집 2호 상편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넘어 일본교회가 창립된 이래 일본 전역으로 선교의 기반을 확대하기까지의 역사를 담았다.

일본 유학시절과 첫 번째 수감

참아버님의 생애 가운데 천명을 받으신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의 기간 중 일본에서 유학했던 1941년 4월부터 1943년 10월까지의 약 2년 6개월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아버님을 태운 배가 부산을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下関)항에 도착할 예정시간은 1941년 4월 1일 오전 7시였다. 참아버님께서는 3월 31일 밤부터 8시간 동안 선내가 아닌 갑판에서 정성을 들이시며 “불쌍한 이 민족을 누가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까? 내가 밤을 새워 별을 바라보면서 정성을 들이오니,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제 떠나가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며, 지켜주시옵소서.”(「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39권」 63페이지)라는 기도를 드리셨다.

참아버님께서는 “당시의 심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다. 21세의 나이에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참아버님의 마음속에는 사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참아버님께서는 생애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으셨다

일본 유학 중 참아버님은 ‘원리’를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체가 되셨다. 또한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아담 국가를 세우기 위해 조선독립운동에 동참했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체험하며 인간과 종교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셨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43년 10월에 귀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서의 독립운동을 한 것이 드러나 경기도 경찰부에 연행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활동을 해오시다 일제에 체포되어 극심한 고문을 받으셨다. 그 고문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고문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다.

고난과 시련을 넘은 개척, 일본교회의 여명기

1954년 협회창립 이후 참부모님께서 세계 선교에 뜻을 두시고 준비해오셨다. 첫 번째 공식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된 지역은 참아버님께서 청년시절 유학하셨으며 훗날 어머니의 나라가 된 일본이다.

1958년 5월 30일, 참아버님께서는 충남 공주의 감사에서 최봉춘 선교사의 일본 파송을 최종결정하시며 “법치 국가에서 위법인 줄 알지만 국운과 천운은 인간의 법을 초월해 찾아온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의의 신념과 행동은 역사가 보증할 것이다.”라며 공식적 하명을 하셨다.

그해 7월 17일, 최봉춘 선교사는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의 고쿠라 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고쿠라 상륙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 선교사는 하늘 앞에 도착을 보고하는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밀항선은 쿠레 해상에서 보안 경비선에 연행되었고, 최 선교사는 구속되어 해상보안부의 유치소에 송치됐다. 이후 히로시마 형무소, 야마구치 형무소를 거쳐 시모노세키 요양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동경으로 향했다.

도쿄에 도착한 최봉춘 선교사는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고독한 선교 개척의 길을 걸었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범망을 피하면서 쫓기듯 전도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 선교사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일본을 구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4월부터 전개된 선교의 결실로 1959년 10월 2일 3명의 식구와 함께 유케이샤(雄鷄舎)에서 일본 통일교회 역사상 첫 예배를 드렸다. 세계 선교국 가운데 최초로 일본교회가 창립된 것이다.

일본 통일교회는 유케이샤(雄鷄舎)·토우와샤(統和社)·이이다바시(飯田橋)·신오오쿠보(新大久保)·스기나미구 마바시(馬橋)·입체문화센터 등을 거치며 점차 확대·성장해 나갔다. 이 기간 동안 마츠모토 미치코, 사쿠라이 세츠코, 코무로 히로유키, 시와우라 히데오, 수도 겐, 쿠보키 오사미, 오야마다 히데오 등이 초창기 교회 중심식구들이 입교했다. 1964년 7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정식허가를 받았고 구보키 오사미 초대회장이 취임했다. (8면에서 계속)

제1차 세계 순회 중 첫 방문지로 일본 동경 도착

1965년 1월 28일 참아버님께서는 세계를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기 위한 제1차 세계 순회 중 첫 번째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하셨다. 유학 후 21년 만에 일본 동경에 오신 것이다. 일본 식구들은 뜨거운 환호와 더불어 성가 '동산의 노래'를 합창하며 참아버님을 환영했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첫 선교지 방문이었다. 참아버님께서는 도쿄교회 성전에 모인 250여 명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고, '일본 식구들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사와 인도하심'을 축원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일본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셨다. 한편, 참아버님께서는 일본 일정 중 도쿄, 나고야, 오사카, 다카마츠, 히로시마, 후쿠오카, 홋카이도, 센다이 등 8곳에 성지를 택정하시고 전국교회를 순회하셨다. 성지 택정시 참아버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식구들과 함께 성가 '새 에덴의 노래' 등을 부르며 은혜롭게 의식을 진행하셨다. 현지 식구들과 헤어질 때는 성가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 부르시며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주시고, 축도를 통해 '하늘 앞에 승리의 결실을 봉헌하는 자녀가 될 것'을 축원해주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일본을 떠나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각국, 홍콩, 중화민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인 1965년 9월 29일, 일본 동경에 다시 들르셨다. 동경에서 환영집회 후 참아버님께서는 하코네, 다이세키지, 이타미 등지를 순례하셨고, 와세다대학 원리연구회 기숙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몇 천, 몇 만 번이나 죽겠다는 각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리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슬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전파를 통한 일본의 부흥운동

『원리강론』의 일본어판이 간행된 것은 1967년이다. 일본 통일교회 창립 8주년 기념일인 그해 10월 2일 '『원리강론』 발간식'이 거행됐다. 또한 1968년 4월 5일 출판사 코우겐샤(光言社)가 설립됐다. 이에 따라 통일원리를 일본 국민 전체에게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본에서 40일 하계개척전도가 시작된 것은 1961년부터다. 『원리강론』의 말씀을 배운 토대 위에서 참아버님의 지도에 따라 1967년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937명의 식구들이 40일간 483개 도시로 하계 개척전도를 나갔다.

197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야마 수련소에서 국제 통일 십자

군(IOWC) 개척 수련회가 실시됐다. 한편 수련회 종료 후 참가자들은 12월 2일, 전국 140개소를 향한 개척전도의 장도에 올랐다.

'100일 수련회'가 1973년 7월 5일부터 지도자급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는 “사회, 국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사람은 우선 세 가지 힘, 즉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하는 설득력, 설외력과 외교력, 경영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원리, 승공이론, 통일사상을 심도 깊게 배우고 전도 능력 및 경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련으로 일본에서는 제1기부터 제18기까지 실시됐으며 이후 '40일 수련회'로 전환되어 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1973년 6월 2일부터 1974년 5월 12일까지 쿠보키 오사미 회장이 전국 124여 곳을 종단하는 '구국의 예언' 강연회를 실시하여 각계 지도자를 포함하여 총 17만 명의 청중들이 참석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필로 쓰신 상패를 하사하셨다.

국제부흥단(IOWC)의 개척 전도와 전국 활동

197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야마 수련소(나고야)에서는 국제부흥단(IOWC) 개척 수련회가 거행됐다. 한편 수련회 종료 후 참가자들은 12월 2일, 전국 140개소를 향한 개척전도의 장도에 올랐다.

1975년 1월 24일 총 104개국의 멤버로 구성된 국제부흥단(IOWC) 360명이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구성은 미국 102명, 프랑스 67명, 독일 52명, 오스트레일리아 35명, 일본 25명, 한국 25명 등이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희망의 날' 대향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내에서 국제적인 전도활동을 전개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희망의 날' 대향연의 내용은 새소망합창단과 한선무용단의 공연과 박보희 국제부흥단(IOWC) 총재의 '희망의 날' 메시지 등으로 구성됐다. 1975년 3월 하순경에는 일본 멤버를 포함한 600명의 국제부흥단(IOWC) 멤버가 방한하여 한국 각지에서 열린 '희망의 날' 대향연에 참여하였고, 동년 6월 7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120만 명이 참가한 '구국 세계 대회' 지원활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1975년 6월 18일과 20일 두 차례로 나누어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국제부흥단(IOWC) 멤버는 총 6팀으로 나누어져 각각 카고시마(鹿兒島), 후쿠오카, 히로시마, 토쿠시마, 오사카, 코베에서 활동했다. 그후 요코하마, 카나자와, 마에바시, 토쿠시마, 나고야, 삿포로로 이동해 계속해서 활동에 임했다. 1976년 1월 17일에는 국제부흥단(IOWC) 유럽팀이 일본을 방문했다.

한편, 참아버님의 제창에 의해 1977년 3월 1일 국제부흥단(IOWC)의 상대 조직으로서 일본부흥단(JOWC)이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출처: 「참부모님 섭리의 발자취; 일본」〉



1. 1972년 2월 동경에서 열린 희망의 날 대향연
2. 사이타마에서 열린 식구집회에서 말씀하시는 참아버님
3. 1965년, 성지를 택정하신 뒤 가진 일본지도자들과 기념촬영해 주시는 참아버님